

선정통해 부처님 설법 확인

금강경 ①

금강경은 대승 최초기에 성립된 반야경을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서 잠시 반야가 두었으며, 반야경은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그리고 금강경은 그러한 반야경 가운데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반야는 일상적인 용어로는 지혜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지혜라고 바꾸어 말한다고 하여 그 의미가 명료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삶의 지혜'라고 할 때 이것이 오랜 경험을 통해 누적된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면, 그 지혜는 단순히 세간적 지식이 쌓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반야는 세간적 지식이 아무리 훌륭한 것일지라도 그러한 지식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다. 반야는 세간적인 사유방법을 뛰어 넘은 새로운 인식의 세계 즉 깨달음의 세계를 담고 있다. 상식의 잣대로는 반야경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러 반야경에는 "오는 것도 아니며, 가는 것도 아니며, 머무는 것 또한 아니다" (不來不去 亦不住)는 말씀이 나온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전의 말씀은 오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니 머무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경전은 머무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반야는 이러한 사실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그래서 반야의 삶은 우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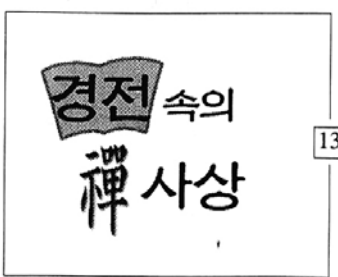
글쓴이



정호영

(충북대 철학과 교수)

상식을 넘어 선다. 그러면 이러한 반야는 어떻게 하여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깊은 명상의 체험을 통해 얻어진다. 한 때 대승비밀설 즉 대승경전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아니고 하여 반야경을 포함한 대승경전의 가치를 부정하는 주장



13

“보살은 어떠한相에도 집착 말아라” 대승 초기반야경...선종의 소의경전

이 있었다. 확실히 대승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육성의 말씀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깊은 종교체험의 의의를 간파하는 것이다. 반주삼매(般舟三昧)라는 것이 있다. 번역하여 관불(觀佛)삼매라고도 한다. 깊은 선정에 잠겨 있는 동안 부처님을 친견하는 체험을 말한다. 반야경은 이러한 관불삼매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 부처님의 설법을 기록한 문헌이다. 다시 말하면 반야경 그 자체가 선적 체험의 결과라는 것이다.

금강경. 정확히 말하여 능단금강반야바라밀경(能斷金剛般若波羅蜜經)은 반야경들

가운데 가장 일찍 성립된 경전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금강경에는 다른 반야경들에 빈번히 등장하는 공이라는 말이 없으며, 산스크리트본에는 대승(mah y na)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전의 형식도 지극히 간결하며, 부처님의 설법 장소에 모인 사람들을 설명하는 대목도 매우 간단하다. 그러면서도 금강경은 반야사상을 매우 명료하게 담고 있다.

금강경은 부처님과 수보리의 문답의 형식을 취한다. 수보리는 부처님께 "보살의 길로 나아가는 선남자 선여인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마음을 어떻게 지

켜야 합니까"라고 질문한다. 보살의 생활과 수행과 마음가짐에 대해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부처님 말씀은 무집착으로 요약된다. 무주상(無住相)보시도 그 한 예이다. 어떠한 상(相)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철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되기도 한다. "수보리여, 보살마하살에게는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며, '중생'이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며, '생명'이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수보리여, 이불 보살마하살에게는 물건(法)이라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물건이 아니라(非法)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수보리여, 그들에게는 생각하는 일도 생각하지 않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를 요약하면 보살은 아(我), 인(人), 중생(衆生), 수자(壽者)의 네 가지 생각과 법상(非相)의 두 가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앞의 네 가지는 인아(人我)를, 중간과 두 가지는 법아(法我)를, 그리고 마지막의 두 가지는 마음의 작용을 가리킨다. 금강경은 이러한 방식으로 인무아·법무아를 설하고 나아가서는 생각과 생각하지 않음을 가르치는 미혹된 생각조차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금강경은 여래가 수많은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하지만, 실은 열반으로 인도하는 여래도 열반으로 인도된 중생도 없다고 한다.

금강경은 금강경이 성립된 인도에서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도 많은 사본을 남길 정도로 매우 대중적인 경전이였다. 특히 중국의 경우 여러차례 번역이 되면서 당나라 때에 이미 800여종의 주석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선종의 6조 혜능스님의 깨달음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면서 금강경은 선종의 주된 소의경전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12

반야바라밀경의 지혜의 길

"결코 오만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음식이 뜻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공과 무상과 무집착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의 자취는 찾기가 힘들다 마치 하늘을 나르는 새의 자취처럼" — 우다나(udana)중에서

다섯가지 덕을 수행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초월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라는 두 가지의 상이한 존재의 수준에 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는 스스로를 유익적인 것에서 이탈시키며 '초월적인 것'을 추구한다.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견해의 근본이 되는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그 자료들은 지각에 의해 얻어진 것이며, 무위인 것은 그것들 속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행자가 가고자 하는 초월의 경지는 바로 '열반(Nirvana)'이다. 그러나 열반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명하는 사람을 만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열반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반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있을 수 없으며, 우리 스스로 경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열반에 대한 모든 개념은 착각이며, 세간의 추리로는 그것에 가깝게 접근할 수 없다.

그러면 수행자들이 어리석은 범부들보다 열반에 훨씬 가

“집착하지 않으면 새처럼 자유롭다”

열반은 생각하거나 추론할수 없어 직접 경험해야 할 불교의 궁극목표

깝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일까요?

우선 명백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은 실제의 열반에 대해서 명확한 관념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안다고 믿는 것은 그들이 만든 열반에 한 번 도달하면 그들은 행복해질 것이고 지금보다 덜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것이다.

오랫동안 부처님의 명상을 지속해온 수행자는 이 세계에는 고(苦)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이 세상과 반대의 것으로 향하는 중도는 더욱 강렬해진다.

반면 범부들은 이 세계의 결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유위적인 것들 위에 자신의 삶의 근거를 두면서, 모든 유익적인 것의 반대로 생각한다.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의 매력있는 것들이 미래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거나 고통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의 반대가 열반이라고 믿는다. 그 다음에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과 반대되는 것이 열반이라고 생각한다. 즉, 열반은 그 모든 것과 반대로 생각한다.

이 모든 과정이 세상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정도에 달려 있다. 이 세상에 대한 혐오가 명백해질 때까지 아무도 열반을 향해서 실제로 다가갈 수 없다. 유익적인 것은 위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매달려 있는 희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가지 덕을 닦아 밝아진 지혜의 눈은 우리의 견해를 완전히 변형시킨다. 하나가 멈출 때 다른 하나는 생겨난다.

번역: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과학산책

텔레포테이션

텔레포테이션 (teleportation)이란 접두어 tele (달라)와 transportation (운송)의 조합어이다. 공상과학작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름으로 어떤 장소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분해해서 다른 장소에 순간적으로 완벽하게 복사하는 기술을 말한다. 소설이나 스타트랙과 같은 영화에서는 물체를 위에서부터 찍어 들여와(scan)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어내고는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이 정보를 전달한다. 전달된 정보는 그곳에서 완벽히 복사된 물체를 만들어 낸다. 이렇게 복사된 물체는 원본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 그 자체로 구성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다만 같은 종류의 원자로 구성될 것이다. 결국, 텔레포테이션 기기는 팩스 기계와 비슷할 것이다. 단지 문서뿐만 아니라 3차원 물체에도 적용된다는 점과 팩스와는 달리 비슷한 전송물이 아닌 똑같은 복사물을 만든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또한 원본은 파괴된다는 점도 다르다.

원본이 파괴되지 않는 텔레포테이션은 불확정성 법칙에 의해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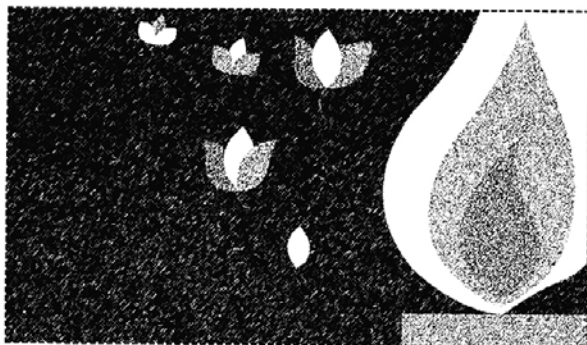
가능함이 이미 밝혀져 있다. 불확정성 법칙에 따르면 한 물체에 대한 정보를 정밀하게 추출하면 할수록 이 과정에 의해 이 물체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영향은 물체의 원래 상태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계속되는데 이 상태에 이르러도 완벽한 복사품을 얻기에 충분한 정보를 얻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텔레포테이션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1993년 IBM 연구원인 벤넷(Charles Bennett)이 포함된 6명의 국제 과학자 그룹은 원본이 파괴된다면 완벽한 텔레포테이션이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과학 소설 작가들의 영감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6명의 과학자들은 EPR(Einstein-Podolsky-Rosen) 효과라고 알려진

양자역학의 괴이하고도 유명한 특장을 이용하여 탈출구를 마련했다. 과학자들은 광자나 전자와 같은 작은 입자를 이용하여 텔레포테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하고자 했다. 1997년 12월 오스트리아의 인스브루크 대학(University of Innsbruck)의 실험소에서는 빛을 구성하는 알갱이인

멀리 떨어진 장소에 물체 전송 이론 가능 국제 과학자 6명 연구

광자(photon)를 텔레포테이션 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들은 특정 장소에 있는 광자들을 파괴하여 약 90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이들의 복사품을 완벽하게 만들어냈다. 이 실험은 떨어져 있는 거리와 무관하게 자연의 기본 입자인 광



자들 간에 물리적인 특성이 전달되는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처음으로 증명하였다. 과학자들은 원자 간의 텔레포테이션은 몇 년 안에, 분자간은 10년 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람은 언제 가능해질까?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처음으로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제안한 벤넷도 부정적이다. 그에 의하면 심지어 박테리아와 같은 단순한 생명체를 텔레포테이션 하는 것도 현대계에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려해 볼 가치가 없다. 모고 보내야 할 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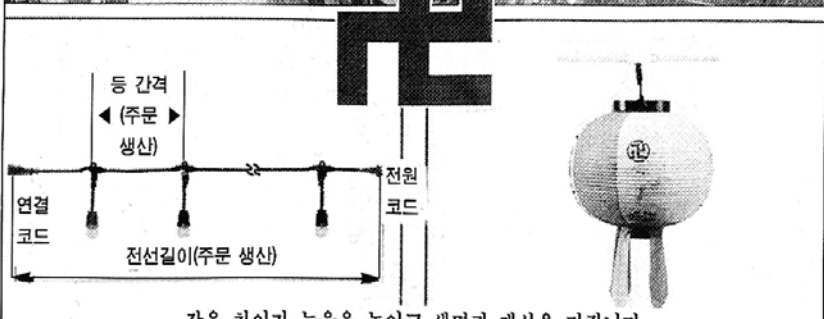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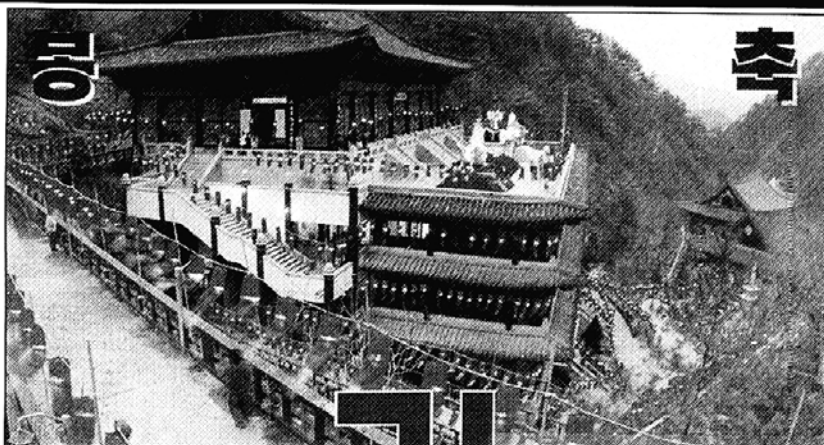
그런데, IBM과 같은 연구소에서 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을까?

이들은 운송수단으로서의 텔레포테이션보다는 컴퓨터의 속도를 혁신적으로 빠르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다. 컴퓨터를 이루는 작은 입자들 간에 텔레포테이션을 사용하면 지금의 컴퓨터보다 상당히 빠른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

A 자체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것이기에 여기에 C라는 새로운 매개체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했다. 어둠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어둠의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는 촛불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고의 원인 그 자체를 찾는 노력보다는 무한한 자원을 깨닫는 노력을 삼매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연·등·용·전·기·배·선·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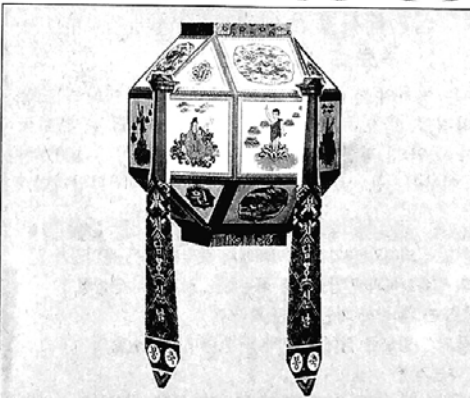
작은 차이가 능률을 높이고 생명과 재산을 지킵니다.

선결배선! 일일이 피복을 벗겨 테이프를 감고, 설치·수거·보관 하시는데 얼마나 번거로우셨습니까? 안전하고 편리하게 빈영구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제일안전공사
☎ (02)525-5801
*휴일없이 24시간 전화 가능합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할 경제에 외국인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할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초벌용(8Cm, 10Cm) ◆ 초벌용위에 연일을 붙인 상태 ◆ 연등한성품 문의 하실 곳 : (02)2277-1548 H:(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풀칠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풍속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염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할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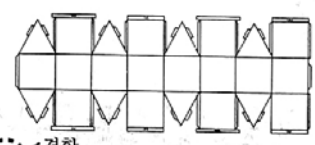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한 다면체 유동 구조적 가격을 배제한 「사할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결지 합지 방식)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